

# 이재용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삼성, 지방 계약학과 신설

울산·대구·광주 과기원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최초 운영...5년 교육  
등록금·장학금 지원...졸업 후 삼성 반도체 취업 보장

삼성전자가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삼성전자는 27일 울산, 대구, 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원 세 곳은 올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선발 인원은 UNIST 40명, DGIST 30명, GIST 30명 등 연간 100명으로, 삼성전자와 세 학교는 5년간 반도체 인재 총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울산·대구·광주 과학기술원에 신설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석사 교육을 통합한 최초의 ‘학·석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특히 반도체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에 신설되는 지방 반도체 계약학과 3곳의 교육 과정은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되며,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SW) 등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반도체 계약학과에 더해, 공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계약학과 3곳이 이번엔 신설됐다”며 “계약학과를 통해 설계, SW, 공정 등 반도체 핵심 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양성해 내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3개 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7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2021년 연세대, 2022년 카이스트(KAIST), 2023년

포항공대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한다. 아울러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취업을 보장된다. 매년 반도체 전문가 260명을 양성하던 기존 일부 계약학과도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3개 지역의 과학기술원까지 추가됨으로써 신설되는 계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부터는 매년 7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당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역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으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과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풀림’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광주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조정희 GIST 대학장, 이형석 국회의원,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양항자 국회의원, 강기경 광주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사진 = 삼성전자)

한편 삼성전자와 GIST, DGIST, UNIST는 이날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해당 지역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대구, 울산에서 각각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김재환기자

## 영호남 시도지사, 복수주소제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 공동성명

김영록 전남지사 제안한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용역 합의



전남도는 최근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

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 ▲남해안권 비핵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목장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도,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대 머리 맞대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 활성화 사업 적극 협력키로

전남도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열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위광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선중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부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사항, 홍보·협조사항, 자율토론 등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지난 2018년 241만TEU를 정점으로 감소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감소 원인과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처리 실적 1위 항만이자, 총 물동량 처리 실적은 2위 항만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60% 이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여수신복항 등 친수시설 관리 운영 방안, 여수 중화동 수제선 정비사업 2단계 추진, 항만 재개발 송배수 시설사업, 광양항 광역준설도 투기장 보상업무, 광양항-울산산단 연



결도로 개설 등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다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검토해 여수광양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는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며 전남도와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토대가 될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협력기구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년 12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오병태 (600317-1665918)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612-8(남동리)

위 망 오병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3월 28일

공 고 인 : 오양에.  
주 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하미길 36 (삼막리)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2월 21일  
공 고 기 간 : 2023. 3. 28 ~ 2023. 5. 28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원전력개발  
Korea Hydro & Power Development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엔 야근이 없어야  
생활 속의 위험을 사전으로 기피하고 근무자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송전입니다.